

기피이유 진술서

각목폭행 피해자 곽춘규 010-3737-7004

2022.4.27.일 오후 3시경 홍은동 파출소에서 각목 폭행사건의 피해 진술을 마치고
서대문서에서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시간이 좀 남으니 매장에 가서 기다리라해서 매장에서 30분 정도 있으니 경찰차가 왔다.

서대문 경찰서에 도착해서 1층의 형사과로 인도해 주었고 20분 정도 기다리고 있으니 한 수사관이 와서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다 그래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인데 그냥 가도 되냐고 하니 , 다음에 다시 부르겠다고 해서 인사를 하고 건물을 나와서 경찰서 정문을 지나는데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왔다.

<서울서대문경찰서 귀하의 사건 접수번호 2022-004022 이 형사1팀 이 경ㅇ 수사관에게 배당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였다.

이경ㅇ라는 이름을 보니 낯 익은 이름이였다. 바로 한 달 전 타이어 대못 사건의 담당수사관이였다. 타이어 대못 사건(2022.2.16.)은 수사관 얼굴도 못보고 전화통화 2번 한 것이 전부다.

그것도 대못 박힌 것이 우연히 운행하다가 박힐 수도 있다며 수사를 하지 않으려 했던 바로 그 수사관인 것이다. 왜 현장에 나오지 않느냐고 하니, 아침과 저녁에 와 보았다고 한다. 왔으면 피해자를 보고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내 차량 블랙박스에는 안 찍혔지만 당시에 구청 cctv가 작동되고 있었는데 현장에 나와 보았다면서 그것은 확인조

차 안하고 그것도 일주일 넘게 있다가 전화 2통이 수사 전체였다.
이때 통화 중에 그 사건 있기 전에 서대문구청 교통과에서 말도 안 되는 주차 시비를 걸어서 당시에 파출소에 신고한 사건이 있는데 , 그리고 나서 2일 후에 생긴 것이 타이어 대못 사건이라고 말해도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던 그 형사였다. 이 구청교통과의 황당무계한 시비는 장장 17년간 아무문제 없이 사용하던 매장 주차장에서 차를 빼라고 한 사건으로, 저의 주차장은 막다른 길이고 건물주와 매장만 사용해온 주차장인데, 17년 만에 갑자기 차를 빼라고 나온 것이고 이들은 범죄사조직의 청탁을 받고 시비를 걸러 온 것이 분명하기에 파출소에 직접 신고까지 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경오 수사관이라는 이름을 보자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고, 현 각목폭행 사건에서는, 파출소에서 피해자 조사받으라고 경찰차까지 보내준 사건에서 수사관이 보자마자 그냥 가라고 해서 나온 것도 이상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경오 수사관이라는 사실을 핸드폰 메시지로 통보받은 후, 나오던 경찰서 정문을 되돌아가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고 청문감사실을 문의하여 자초지종을 말하고 수사관 기피신청을 하고 돌아온 것이다. (2022.4.27.)

그 후 이경오 수사관은 하루 지나서 전화를 했고, 기피신청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타이어 대못 사건으로 볼 때 또 그런 식으로 수사할 것 같다고 했더니 이미 가해자 조사를 해서 각목폭행 인정을 받았고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려고 한다고 하며 수사관기피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재차 피해자 진술은 받지도 않고 검찰에 송치하느냐고 하고, 서대문교통과 신고사건 등과 관련하여 일련의 사건이 연속되고 있어서 청탁범죄 사조직과 교사범이 있으므로 다른 분이 수사해 주길 원한다고 하니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와 같이 이경오 수사관의 믿지 못할 언행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타이어 대못 사건에서 관리미제사건 등록 통지서를 보내고는 이후에 사건을 계속 자신이 맡는다는 식으로 (형사1팀 경감 임경택) 통지서를

보내왔다.(다방면으로 수사했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서 미제 편철한다고 했으나 전화 2통이 다방면 수사인가, 현장에 있던 구청 cctv 확인도 안하는 것이 단서부족인가)

이 말이 얼마나 허황된 말인지는 그의 전화통화 내용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이경오 수사관은 타이어 옆구리에 박힌 대못을 보고도 운행 중에 저절로 박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 하니 열에 한 둘은 즉, 20%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의 말대로 20% 가능성 때문에 80%의 실현된 범죄피해를 수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인가. 하도 어이없어서 서대문교통과의 청탁시비 범죄를 수사할 의지가 없다면 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후 한 달 정도 있다가 관리미제사건 등록 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타이어에 대못이 박히고, 신고하고 나서 카센타에서 빵구를 때우고 그때 박아놓은 찰고무 땀빵, 일명 지렁이가 타이어 밖으로 1센티 정도 나와 있었다.

그 후에 장거리 운행도 했는데, 대구에도 갔다 왔고(왕복 600킬로미터) 매장 일도 1달 정도 보았는데 빵구 때운 지렁이는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있다.

즉, 대못이 그 자리에 저절로 박힐리는 만무하단 이야기인 것이다. 보통 빵구 때운 지렁이는 300킬로 정도 다니면 다 닳아 없어진다.

그런데 , 지금 저의 타이어 빵구 지렁이는 처음처럼 멀쩡하다.

이런 방식으로 직전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문감사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사건 요지이기에 경어는 생략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수사권이 경찰에 거의 넘어왔는데,

검수완박에 반대하던 검찰과 법원등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던

1. 수사지연
2. 부실수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디 경찰의 수사권독립이 헛된 구호가 되지 않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승리

2022.5.25.

피해자 곽춘규